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 권 _ 제 193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11월 19일

함즐함울

www.pcltv.org

오늘, 추수감사예배

섬김 · 나눔 · 감사, 풍성한 수확 이웃과 함께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부르심이라

시37:24

프로그램

〈작은 빵의 축복〉

늘 작은 빵만을 가져갈 수 밖에 없었던 아이에게 특별한 일이 벌어 지는데...

〈파란 구두 울트라맨〉

1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는 어머니를 돌보는 아들의 사랑과 행복이야기

〈내 발의 등, 주의 말씀〉

시각장애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읽고 암송한 로마서 12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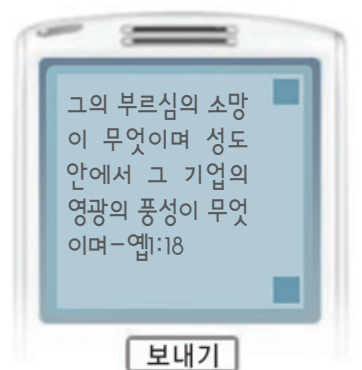
〈축복의 찬양〉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로템나무

물맷돌 같은 말씀선물

요즘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는 부서의 집사님과 자매들에게서 이따금 성경말씀문자가 날라 온다. 그 말씀들이 내 핸드폰에 던져질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을 받았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문자를 보내는 그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 말씀을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받는 나의 시간이 너무도 절묘하기 때문이다. 하는 일이 뜻대로 안되어 상심해 있을 때, 내가 무언가 남에게 말할수를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을 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혼란스러울 때, 갑자기 어떤 사건으로 마음의 평화가 깨어졌을 때...등 그리고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을 때 온 말씀문자도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말씀으로 인해 다시 한 번 은혜를 받는 경험을 한다. 성경을 보며 한 구절 찍어 보내는 것은 1~2분정도밖에 안 걸리지만 그 작은 말씀 하나로 골리앗만한 덩치의 문제들을 넘어뜨려서 승리하게 해주심을 체험했을 때 '이것이 과연 생명의 말씀이다'는 것을 다시금 감격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 겉으로 드러내진 못하지만 암흑 속에 있을 누군가를 위해 물맷돌 같은 말씀문자를 보내 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허진(함즐함울 일러스트레이터, 기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다. 교회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계기로 온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우리의 이웃을 초대하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3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진행될 추수감사예배는 지난 한 달여간 많은 성도들의 정성으로 준비되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과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획된 추수감사예배는 [작은 빵의 축복]의 제목을 가진 어린이 연극, 제작진이 직접 인사동길에서 취재한 보통 사람들의 감사 이야기, 30CUP 찬양팀과 함께 하는 찬양의 시간, 황교진씨의 간증, 루디아의 집의 시각장애인 4명이 외우는 성경 암송 그리고 SOUL SINGERS MEN의 찬양 시간으로 성도들을 기다린다. 주강사로 초대된 황교진씨는 '어머니는 소풍 중'의 저자로 뇌출혈로 쓰러져 식물인간 상태로 10년동안 누워 있는 어머니를 돌보고 있어 참석한 성도들에게는 진정한 감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사

람들에게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미술인선교회 두 번째 작품전시회

수익금은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



오후 4시까지 같은 장소에서 전시된다. (4면에계속)

주님의교회 전문인선교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미술인 선교회의 두 번째 작품전시회가 오늘부터 8일간 교회 지하의 작은 식당에서 열린다. 오늘 추수감사절부터 다음주일까지 전시될 이번 작품전의 운영시간은 주일, 예배시간에 맞춰 전시되고 평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참여해
보세요

'함즐함울'에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다!

함즐함울에 실릴 성도들의 글을 모집합니다!

먼저, '로템나무'는 작은 사건이나 생각속에서 발견한 감동과 기쁨 혹은 깨달음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혹은 성도개인의 주변공간에서 체험한 일을 같이 나누며 묵상할 수 있도록 A4 1/4 분량으로 간결하게 써서 보내면 됩니다.

둘째, '나의 신앙이야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와 교제를 체험한 이야기를 고백하는 간증문으로 A4 1/2 분량을 써서 보내면 됩니다. 독자들이 글을 읽으며 함께 신앙성장의 계기로 삼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구역모임'을 소개하고 '사역부서'에서 일어난 일들을 소개해주십시오. 독자들과 서로 덕을 쌓는 공동체 생활에 대해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귀한 매체로 사용될 것입니다. 분량은 A4 1/4 정도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의 글을 hamnews2006@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기사는 함즐함울편집회의를 거쳐 신문에 게재됩니다.

■ 요람제작을 위한 사진 촬영 ■

다음 주일 11월 26일부터 약 두 달간 2007년 요람제작을 위한 사진촬영이 교회 로비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입니다.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현장

"우리를 강건케 함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



지난 15일 수요일에 이성민 선교사가 디모데후서 4장 17절~18절

로 말씀을 전했다.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는 중 일시 귀국한 이성민 선교사는 그간의 사역현장을 생생한 사진으로 담아 교인들에게 전했다.

이 선교사는 '신앙'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봉사와 선교'는 건강을 유지하는 운동에 비유할 수 있다며 '선교와 봉사'를 강조했다.

바울은 성경에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

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라 고백했다. 이 선교사는 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영육의 강건은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고 전했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듯이 선교와 봉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유하나, 진정한 영육의 건강함은 주님의 임재, 주님의 동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선교의 현장에서는 전후방이 따로 없으며 모든 이들이 전력투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민 선교사는 '내가 건강하다는 확신이 생길 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며 캄보디아에서의 사역활동에 대한 주님의 교회 교우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를 요청했다.

군선교사역팀

"전방추위를 녹인 군선교"



가을이 어가는 지금, 전방은 많이 추웠다. 그러나 교회 군선교회원과 기쁜 소리찬양단의 찬양과 기도예에 전방 부대교회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추위를 녹였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사랑을 그곳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강진식 안수집사의 인솔로 경기도 연천에 있는 5사단 상송부대교회를 찾아 가진 저녁 찬양

예배가 기쁜 소리찬양단의 한 시간여 동안의 찬양으로 사랑과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어느 병사는 어머니를 만난 듯 소리 높여 울고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감동 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교는 홍의운강사의 빌립보서4장47절의 말씀으로 '지략으로 승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전해졌다. 요셉처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바른 관계를 회복하므로 승리할 수 있다고 전한 홍강사는 우리는 성령의 지혜를 통하여 주안에서 기뻐하며 관용을 모두에게 베풀며 기도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자고 당부했다.

오늘 기도



애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노숙인에 대한 이해

노숙인을 위한 단체와 교회에서 역할 분담 필요



자유인(노숙자) 사역팀에서는 "노숙인(자유인)에 대한 이해" 강의를 11월 12일(일) 윤 건(거리의 천사들 총무)강사의 강의로 열렸다.

"누구나 노숙인(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강의 제목으로 강사 자신도 IMF시절에 사업의 실패로 가족

해체와 노숙자가 되기 일보직전에서 가족들의 협조와 이해로 노숙자 봉사 사역을 하게 된 사연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노숙자 사역과 노숙자들과 마음 문을 열수 있는 방법 등을 강의 하였다. 노숙자들은 의타성, 욕구 불만, 자포자기, 낭비성, 열등감 등이 팽배해 있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고 일을 하기 싫어해서 그들이 자활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결국은 노숙자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와 교회에서 역할 분담과 시설 및 자금 분담 등을 효과적으로 연결하여 노숙인들이 얻어지는 날을 바라보며 사역을 해야 한다고 했다.

본 교회는 노숙인을 '자유인'이라고 바꿔 부르기로 했으며 노숙자(자유인) 사역에 많은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신앙 이야기

직장생활 속 주님의 오아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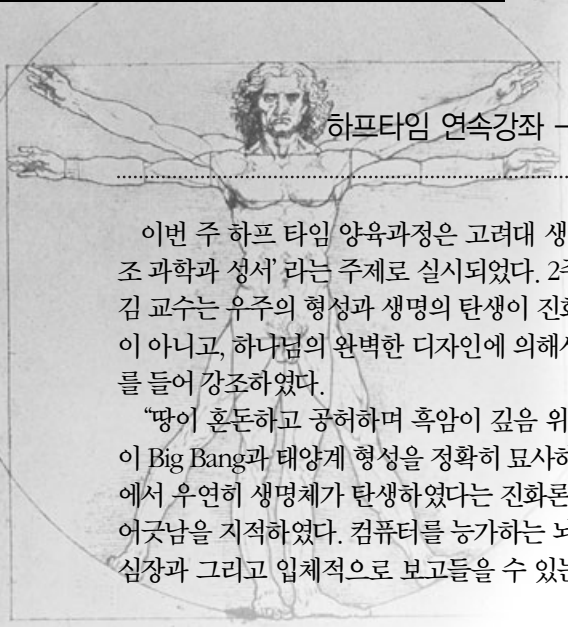
저의 젊음의 때를 보낸 한국주택은행에서의 30년간의 직장생활 중 15년간의 직장 기독교신우회에서의 사역을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은행원으로서 직장생활 하고 있던 어느 날밤(입행후 15년째 즈음) 석촌호수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리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 때 제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는 생각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시구나! 깨닫고, 다음 주일에 초등학교시절과 결혼 후에 아내의 권유로 주일에 몇 번 갔었던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등록 후 남선교회를 따라간 원주 문막에 있는 농촌교회에서 철야기도 하는 중에 위로부터 한줄기 강렬한 빛을 받았고 그리고 서재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주님이 곁에 계시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직장 기독교신우회에서 직장선교에 쓰임 받기 시작 했는데, 기독교신우회에서는 월례예배, 성경공부모임, 매월 철야기도회, 신앙수련회, 전직원 초청 선교의 밤, 노방 전도, 북경신학생 후원, 금융기관 연합선교회와 직장선교연합회 참여, 선교사 파송후원등 직장복음화 사역과 그리고 기독교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 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이 들고 실망이 커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었으나, 그때마다 성령님께서 동역자들과 함께 손잡고 기

도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 다시 새 힘을 공급받아 쓰임 받은 했습니다. 신우회에서 가장 역점을 둔 사역이 매년 11월에 개최하는 "전직원 초청 선교의 밤"이었는데, 여러 달 전부터 릴레이 금식기도와 여러 번에 걸친 철야기도모임을 통하여 예비하여 두신 심령들을 구원해 주셔서 날로 복음화되어 가는 일터가 되게 하셨습니다. 신우회 참석 권유를 위해서 안내전단을 돌리고, 각 부서와 지점 방문 및 전화를 하여 전도하고 ... "직장에 파송된 선교사"라는 사명감을 갖고 사역을 하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어려움을 절감했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오는 주위의 핍박과 시기 그리고 신우회 사역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과 오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진정 주님을 증거 하는 삶이 남은 인생에서 최우선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퇴직 후에 만난 후배가 저에게 '선배님은 주택은행의 전설입니다'라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직장후배들의 영혼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년간의 은행생활 중의 절반이라도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무익한 저를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김창안(안수집사)

환경강좌/하프타임 취재



하프타임 연속강좌 - 창조 과학으로 비춰본 성서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 인간

이번 주 하프 타임 양육과정은 고려대 생명과학부 김익환 교수의 '창조 과학과 성서'라는 주제로 실시되었다. 2주 연속하여 진행된 강의에서 김 교수는 우주의 형성과 생명의 탄생이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한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완벽한 디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과학적 근거를 들어 강조하였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는 창세기의 구절이 Big Bang과 태양계 형성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으며, 화학물질의 조합에서 우연히 생명체가 탄생하였다는 진화론적 관점이 열역학 제2법칙에 어긋남을 지적하였다. 컴퓨터를 능가하는 뇌와 하루 10만 번을 박동하는 심장과 그리고 입체적으로 보고들을 수 있는 눈과 귀 등 신비한 우리 인

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과 영원하심을 깨달을 수 있으며, 이어서 김 교수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라는 로마서 1장 20절을 인용하였는데, 어떤 분의 의도적인 창조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은 우연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DNA의 변이와 세포의 자살, 면역체의 공격 등을 예로 들어 암과 노화의 과정을 풀이하였으며, 노화는 하프 타임 회원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기도 하였다.

금년 1학기과 2학기를 통하여 하프 타임 양육과정에서 다양한 교양 강좌가 실시되었다. 이번 김 교수의 강의는 하프 타임 양육과정의 종강으로서 의미 있는 매듭을 지었으며 조출한 다과회도 이어졌다.

환경강좌 세 번째 시간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힘, 물을 살립시다!

11월 15일(수) 유미호(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국장) 강사의 강의로 열렸다. 이날은 모든 생명의 근원인 물에 대한 강의를 했다.

사람들은 날마다 물의 유혹을 받으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물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우리들은 물의 소중함을 소홀히 하며 살고 있다. 또 물은 일상에서 우리의 몸을 정화 시키는 일도 하고 있다. 피부를 청결하게 하여주고 몸에 축적된 독소 등을 배출 시키는 분비 기능을 원활하게 해 준다. 물의 소중함에 대한 무지 속에 세계적으로 물 기근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많은 인구가 물의 오염으로 인한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수인성 전염병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날은 특별히 물 오염을 줄이는 천연세제 비누(EM비누)만들기 실습을 했다. 비누 만드는 실습 시간은 모두 환경 파수꾼이 된 듯 열심히 비누를 만들고 본인이 만든 비누를 가져갔다. 또한 우리가 매일 쉽게 생각하여 버리는 싼뜨물도 물의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그 싼뜨

물도 발효액을 만들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법도 강의해 주었다.

네 번째 강의는 11월 22일 오전 10시 30분 3층 초등부실에서 있다.

이날은 섬유 니트 수세미 효용성과 만드는 방법 등을 강의하게 된다. 문의, 환경사역팀, 백숙자 원사



농어촌 교회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주님의교회 선교 본부 농어촌 교회 사역팀
팀장: 조성득
팀원: 김홍용 최재규, 홍운식, 방치웅 유재근, 김유남, 권승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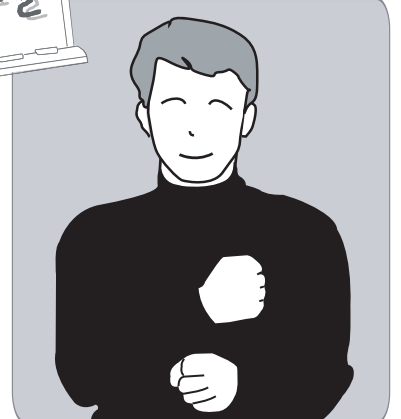
농어촌 교회 사역팀에서는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경상남도 사천의 안다옥 교회, 진사교회, 유천 교회, 무고 교회, 거제의 쌍포교회, 고성군의 장춘 교회 등 6개 미자립 농어촌 교회를 방문하였다.

이번에 방문한 교회들은 농어촌 지역 특성상 매우 열악한 교회들로 인구조차도 줄어드는 지역에 위치

해 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 본 교회의 재정 지원은 농어촌 교회의 사역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큰 도움과 힘이 되고 있다고 우리 교회 전 교인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 이와 같이 보고 듣고 확인한 결과 미자립 교회는 지역적 특성상 재정의 자립이 불가능했다. 사역하시는 목회자들도 한 여려 가지 사정으로 교회가 부흥하여 자립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우들의 손과 발이 되어 신앙생활을 돕고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고자 사명감을 가지고 애 쓰고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역하시는 목회자들의 기초 생활마저도 교회 재정으로는 충당하기 어렵고 특히 자녀 교육은 더욱 더 어려운 실정이다. 어려운 현실 속에 처해 있는 미자립 교회를 방문한 사역 팀은 농어촌 교회와 그 곳에서 사역하시는 교역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농어촌 교회의 교역자들의 생활과 자녀들의 교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단이나 도시의 대형 교회에서 제도적인 지원이 해외 선교만큼이나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농어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고자 하시려는 분은 농어촌 교회사역팀에 연락하면 된다.



하다 do

양손을 주먹 쥐고 오른주먹으로 왼손목을 두세번 두드린다

Misson 한글함글, 표준어사용 시리즈

“우리가 표준말의 희망입니다.”

이번에도 수능 문제는 "난이도를 조절하여 쉽게 출제했다."라고 합니다.

난이도(難易度)는 '난도'와 '이도'가 합쳐진 낱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난도가 어려움의 정도고, 이도는 쉬운 정도니 난이도는 "어려움과 쉬운 정도"입니다. 흔히,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가 높다'라고 표현 하는데 이는 둘 다 틀린 표현입니다. 당연히 '난이도가 있다'는 틀립니다. '쉽고 어려운 정도가 있다'는 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높다'도 틀린 말입니다. '쉽고 어려운 정도가 높고 낮을 수 있다는 것 역시 모순된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는 '난이도를 조절하여...', '배점은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진다'처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굳이 일본말에 어원을 둔 난이도라는 말을 쓰기 보다는 문제를 쉽게 냈다, 문제를 어렵게 출제했다고 순화하여 쓰는 것이 좋습니다.

미술인선교회 두 번째 작품전시회 (1면에 이어서)

이번 전시회는 '감사와 나눔'이라는 주제로 창작품을 전시할 예정이며, 작품을 제출하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교회 다니시는 분으로 현재 미술관련 전문인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다. 이번 전시를 통해 판매되는 수익금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는 일에 사용될 예정이다.

미술인 선교회는 본인이 하고 있는 전

문적인 분야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전문인들의 모임이다. 매월 모여서 함께 기도는 이 모임은 아직 선교에 있어서 미개척분야인 미술의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이 이 세상에 전파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선교적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이들은 움직이고 있다.

4-18구역의 원주나들이

지난 11월 11일(토) 4-18구역은 원주에 있는 이상우 안수 집사, 이상경 권사 댁을 심방 하였다. 이 가정은 현재 회사 경영을 위해 원주에 머물고 있으며 그곳에서 매주 주님의교회로 출석하고 있다.

18명의 구역원이 참석을 하여 치악산의 맑은 공기와 단풍을 구경하며 참숯불가마도 체험하고 구역식구 간에 많은 유대와 은혜를 나누었다.

신화식 목사는 "태양이신 하나님"(시편 84:10-12)의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은 해와 방패이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



에게는 은혜와 영화를 아끼지 않으신다며, 먼 곳에서 교회에 참석을 하며 하나님께로 감격이 넘쳐 나오기를 바라며 만민의 웃음을 항상 가지라는 말씀을 전했다.

교회생활 이모저모

박진수집사 목사 안수



지난달 10월 26일 양재햇빛교회에서 우리교회 중등부교사로 수고하셨던 박진수집사(2군단 사령부, 부인 하현숙집사)의 목사 안수식이 있었다. 박진수목사는 15사단 부사단장으로 근무할 때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보호관찰사병을 돌보고 부대 지휘관들을

위한 아버지학교를 개최하는 등 부대 및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셨던 분으로 이제 주님의 부름을 받아 실제적인 목회사역을 하게 되었다. 군선교부에서 강진식집사와 여러 관계자들이 함께 축복했으며 군중 목사의 수가 줄어들어서 군복음화의 사역에 힘들어하는 현 시점에서 박진수목사의 결단과 헌신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많은 기도와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5층 난방/방음공사

5층의 효율적인 사용을 난방과 방음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공사로 그동안 겨울철 5층 사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파티션이동공사로 세미나실과 상담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11월16일 수능당일 장신대 세계교회협력센터에서는 수험생과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8:30~5:00까지 시간마다 담당목사들의 인도에 따라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렸다. 학부모들은 그동안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관심했고 또한 세상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했다. 기도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아름다운 자녀들을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축복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중보기도 사역팀 전체 모임

기도, 우리의 우선순위로

11월 9일 목요일 유치부실에서 중보기도사역자 50여명이 모였다.

특히 이번 모임은 새로 사역을 시작한 8기 사역자를 환영하고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였다. 정영환 목사의 담후2:1-6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고, 능력이 있고, 재물이 있어서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은 혼자 할 수 없으며, 시간사용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로 기도시간을 지킬 것을 강조했다. 이 사역을 위해 규칙을 따르고 인내하며 충성된 마음으로 끝까지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중보기도는 신성한 노동이지만 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충성스럽게 사역할 때 더 풍성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했다. 중보기도사역팀은 다음의 기도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를 드렸다.

기도내용

그동안 중보기도 사역을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헌신하는 시간이 되기 위해
★교회를 위해서, 담임목사 청빙을 위해서
★8기 사역자들을 위해서

유아세례교육

선한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며...

2006년 12월 3일(일) 유아세례를 위한 유아세례교육이 지난11월 5일부터 시작 되어 11월 26일 까지 4주간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교육받는 대상은 9가족 11명의 유아들이다.

세례예식 팀 정희성 목사는 유아세례는 구원받은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전하며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보고 닮아간다고 좋은 부부관계가 유아들에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례예식 팀에서 봉사하고 있는 한 집사는 세례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진한 감동과 은혜로운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으며 선한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며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축복을 받고 있다며 봉사의 기쁨을 전했다.

